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원칙들

Biblical Principles on the Economic System

조 성 표

I. 성서와 경제체제의 문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성서적 비평은 지난 번 학회에서 논의하였고 <통합연구>에 게재한 바 있다. 이 두 글에서 우리는 양 경제체제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자본주의체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그 동인으로 하고 있어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나,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를 비판하고 나온 사회주의체제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인위적인 조정이 어려우며, 권력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많은 부정이 개입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체제에 우선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주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세상의 편만한 죄성때문에 어떠한 경제체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제대로 구현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의 타락한 성품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조직화하고 계도하는 체제의 문제를 신중하게 성서의 원리에 비추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이 성경을 상고하여 경제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 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보다도 성서의 원리에 의해 인도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서의 원리를 이용하여 우리의 경제체제를 평가하여 봄으로써 이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셋째로 특정한 경제체제를 관찰하고 비평하여 봄으로써 성서적인 원리를 더욱 잘 알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부면에서 그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탈된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치리하셨는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제체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우리의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2)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림에 있어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3)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 정의를 증진시키는 데, (4)모든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두를 완전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앞의 두 일은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들은 인간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소홀히 한다면 세상적으로도 건전한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우리와 우리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아울러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경제체제는 다음 세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로 구성 된다(Paul Samuelson, pp.15-16).

- 1) 어떠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것인가?
- 2) 어떠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것인가?
- 3) 누구를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에 관련된 성서에서의 대답들을 찾아 봄으로써 성서적인 경제체제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Grudem의 논문을 근간으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II. 어떠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것인가?

이 질문은 생산물에 관한 질문이다. 성서에서의 이에 대한 대답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규정한 창조질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원칙1> 우리는 재화와 용역을 인간들의 효익과 향유함을 위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에 관한 통치권을 주셨



필/자/소/개

조성표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과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공인회계사로서 대우중공업 예산과장 대리를 역임 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구 수성성서침례교회 집사이며 청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기획담당을 맡고 있다.

다(창 1:28).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을 효율적으로 돌보고 아끼며, 이와 함께 이를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합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우리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우리의 효익(benefits)과 향유함(enjoyment)을 위하여 생산되어야 한다(딤후 4:4, 창 1:31, 신 16: 11, 렘 2:7, 행 2:46).

〈원칙2〉 우리는 재화와 용역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목적하에 생산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이 물질을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제멋대로 생산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되, 마약, 퇴폐물, 무기, 술 등을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에 합당하도록 생산활동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벧전 2:14, 롬 13:3). 이 원칙은 자유방임경제보다는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원칙3〉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가지고 일부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야 한다.

경제체제내에서 잘못된 생산을 정부가 규제하기 위하여는 과세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도로등 공공재를 생산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세금의 징수가 필요하다. 악을 제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기능이며(롬 13:3),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성서에서 역설되고 있다(롬 13:6).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체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재화의 생산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원칙4〉 그리스도인들은 재화와 용역을 영적인 목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성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물질적인 헌신을 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복음전파와 선교, 예배당건축, 출판, 구제등이 그 예로서, 이러한 활동들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야 하는 경제활동이다. 그런데 이 활동들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고후 9:7).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체제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여야 한다.

〈원칙5〉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는 각 개인의 도덕성이 필요하다.

이 마지막 조건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경제에서는 각 개인의 의사결정이 모여 상품의 가격과 생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 참여자들의 건전한 도덕성이 필요하다. 계획경제라 할지라도 각 개인의 성향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체제는 각 개인에게 건전한 도덕성을 심어 줄 수 있는 체제이어야 한다.

III. 어떠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것인가?

이것은 생산양식 또는 생산수단에 관한 질문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원칙6〉 이 지구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에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풍성한 분으로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자원을 주셨다. 성경 어디에도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없다(시 65:9-13, 사 35:1-2, 암 9:13). 따라서 우리가 일하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에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로마서 8장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나 '범세계적 2000보고서' 등에서 경고했던 자원고갈의 경고와는 모순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원고갈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임박한 사실적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의 탐욕과 낭비에서 비롯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지구상의 자원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만이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후세대를 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보전하여야만 한다. 이 지구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충분하지만, 우리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간디의 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7〉 자원은 낭비되거나 축재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성서에서는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다(창 1:1, 시 24:1, 50:10-12).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두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다(고전 4:7).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자원들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눅 19:11-27, 마 25:14-30).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낭비와 탐욕은 엄하게 징계되고 있다(신 21:20, 암 6장, 딤후 1:12). 따라서 모든 자원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효율의 면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체제보다도 자본주의체제가 우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 면에서 볼 때는 시장경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8〉 모든 재화와 용역은 인간을 존중 하는 방법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이다(창 1:26). 따라서 무엇보다도 인간이 존중되어야 한다. 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인간을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생산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인간의 일이란 창조적이어야 하는데, 창조적(creative)이란 말은 글자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따라 사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출 36:1).

〈원칙9〉 자원의 사용에 있어 필요시 정부가 규제하여야 한다.

시장경제가 효율적인 생산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경제에서의 상품의 가치는 사용 가치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잘못되면 사치품과 해악품을 생산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의 계도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분야로서 독점의 규제, 위법과 탈법의 처벌,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의 보호, 악의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칙10〉 모든 자원의 이용은 하나님께 대한 의뢰와 감사의 맥락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마 6:11).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할 권리를 주셨으며(신 8:18),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일에서 견고케 하신다(시 90:17). 우리가 취하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은사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여야 하며, 그 이용에 있어서도 주님의 방법에 의뢰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목적과 운행하시는 목적을 잘 살피서 이에 합당하게 자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이 우리에게 가장 높은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IV. 누구를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것인가?

이 질문은 소득을 사용된 토지, 노동, 자본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지대, 임금 그리고 이자 및 이윤에 관한 문제로서 소득 배분의 문제인 것이다.

<원칙11> 일정한 조건하에 사유재산(관리)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성서에서는 분명히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이를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말 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직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되어 버 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에게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존재하며, 우리 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말은 바 청지기직에 대하여 그 일한대로 정확한 회계 를 하게 될 것이다(계 22:12).

현대사회의 양대체제인 자본주의의 사유재 산권 개념도, 사회주의의 국가소유의 개념도 성서적인 청지기의 개념과는 다르다. 또한 인간의 죄된 성품은 더 이상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 그리스도인들에 까지 청지기의 원리를 강요 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이 두 개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강 제가 아니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를 허용하고 있으며, 자원의 관리에 있어 배 타적인 수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는 사회주의의 강제적인 국가소유권보다는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이 좀 더 성서적인 사 유재산권의 개념과 가깝다고 판단 할 수 있 다. 다만, 이 재산의 소비와 사용에 있어 빈 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한과 사치의 금지 등 일정한 기준이 부가된다면 자본주의의 사 유재산권 개념이 청지기 정신의 구현에 더 유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칙12> 타인을 고용하거나 자신의 자 원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자원을 소유한 유산자 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고용자 와 피고용인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성실히 일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엡 6:6, 골 3:24, 딤후 6:2). 다만 고용주 는 그들의 피고용자들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접하여야 한다(골 4:1). 또한 구약에서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토지를 남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레 25:16).

<원칙13> 일의 양과 질에 따라 그 대가 가 돌려져야 한다.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눅 10:7, 딤후 5:18). 또한 일꾼은 그 결실을 바라고 일을 한다(고전 9:10). 여기서 일의 삯 또는 결실이란 그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 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 이다. 성경에서 평균(equality)으로 번역된 것은 대개 공정(fairness, 헬라어로는 isotes)의 의미이다(골 4:1, 고후 8:14). 자신이 일한대로 그 대가를 받을 때 이것이 동기유발이 되어 경제의 운영도 더욱 효율적 이 될 것이다.

<원칙14> 자신이 직접 일한 노동소득에 자산보유로 인한 불로소득보다 더 많은 대가가 돌려져야 한다.

모든 노력에는 그 대가가 주어져야 하며, 이 소득들이 축적되어 재산을 형성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들이 누적되고 이것들이 후대에 상속된다면 후대 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는 소득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거듭되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따

라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당대에서만 그 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상속과 증여를 금지하고 자산소득을 노동소득에 비해 증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는 성서적 개념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칙15〉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의 대가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위의 여러 원칙들과 함께 영적인 관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며(골 3:23),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상의 재물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임을 명심하여야 한다(마 25:21).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직업과 일의 정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경제체제가 바람직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순전히 물질적인 대가만을 강조하는 경제체제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원칙16〉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이 돌려져야 한다.

성서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갈 2:10). 특히 믿음의 형제를 더욱 돌보아야 한다(갈 6:10). 그러데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일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 책망하신다(살후 3:10).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체제란 일할 사람은 모두 일하게 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빈궁한 자들에게 경제적 배려를 하는 체제일 것이다.

〈원칙17〉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배려를 하여야 한다.

빈궁한 자들에게 대한 배려는 국가에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다(요일 3:17, 갈 6:10).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딤후 3:14, 마 6:19-20).

V. 결 론

이상의 여러 원칙들은 우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고 취해야 할 경제원칙들이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다. 이 중 5, 10, 15이외의 원칙들은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이 확실하며, 이 셋도 일반 도덕원칙에 비추어 보면 비그리스도인에게도 합당하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서적인 경제원칙들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성서에서의 경제원칙들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있는 존재이며,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소임에 대한 회계를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성서적인 경제체제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가 방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계도하고 규제하면서도 효율적인 생산을 이루는 체제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부 정부의 규제를 받는 시장경제체제가 성서의 경제원리에 가장 가까운 경제체제가 아닐까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 본다.

론을 “왜”에 관한 목적론적 설명에 기울게 만들고 “어떻게”에 관한 역학적 논의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남도록 하였다. 최근에 와서 분자생물학과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생명체의 근본 구조인 유전자와 원자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증대되고 통계 열역학적 또는 비평형 열역학적 이론이 정립되면서 다아윈의 진화론은 크게 수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정된 신다윈주의 또는 현대 종합이론은 비평형 열역학에 기초하지 않고 열역학적 평형이론과 분자생물학에 기초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 종합 이론도 많은 문제점을 여전히 안게 되었다.

그러면 왜 진화론자들이 비평형 열역학에 기초한 확대 종합이론을 도입하면 많은 난제가 설명되는 데도 불구하고 평형 열역학에 기초하려고만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도 다아윈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다아윈의 진화론은 크게 세 가지 사상 또는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Lyell의 동일과정설 (Uniformitarianism), Malthus의 인구론, 그리고 Newton의 기계론적 역학이다. 이 중에서도 Newton의 역학으로 인한 영향이 바로 결정론적 환경 영향인 자연도태 개념을 남도록 하였다. Newton의 폐쇄계에서의 결정론적 역학은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에 의해 도입되어 Malthus의 인구론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다시 다아윈에 의해 적자생존의 경쟁 개념으로 발전하여 결국은 결정론적 환경영향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현대 종합이론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뉴턴 역학계는 개념적으로 폐쇄적이며 결정론적이고 그리고 가역적이며 분해 가능한 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전제는 그 이후 경제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생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진화론도 이러한 영향에 의하여 폐쇄계에서 변이로 Microstates가 평형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결정론적인 환경요인인 자연선택에 의해

Macrostates가 결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자연과정의 비가역성이나 Dollo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결정론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선택된 Macrostates는 생태계의 계층구조처럼 다양해 질 수가 없고 또 왜 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Macrostates가 결정되었는지와 근본적으로 Microstates와 Macrostates간에 비가역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Dollo 법칙을 만족시킬 수 없다. 현대 종합이론은 이와같은 뉴턴 역학계에 근거한 다아윈의 진화론적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비평형 열역학에 근거한 확대 종합이론 보다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확대 종합이론을 펴는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의 인식론적 근거 내지 배경가정(background assumption)을 뉴턴 역학계에서 비평형 열역학계로 바꾸어야 현재의 진화론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기원에 관한 열역학적 논의에 있어서 제문제들을 개괄하였다. 여기서 주로 거론된 입장들은 대부분이 진화론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발전된 것들이다. 창조론적 '입장은 단순한 논리 수준 이외 별로 제안된 것이 없다. 이러한 창조론적 입장의 빈약성은 기원문제를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모든 물질과 생물이 초기의 특수한 상태에서 아무런 외부의 개입없이 저절로 지금과 같이 진화하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론자는 창조된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통해 그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며 유익을 끼쳐야 하므로 팔짱만 끼고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묵

참고문헌

1. 조성표(1990)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통합연구> 제3권 1호, pp.15-20.
2. 조성표(1990)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통합연구> 제3권 2호, pp.46-54.
3. Griffiths, Brian(1984), *The Creation of Wealth: A Christian Case for Capitalism*, Illinois, Inter-Varsity Press.
4. Grudem, W.A., *How an Economic System can be Competable with Scripture in*
- R. C. Chewning(ed.), *Biblical Principles & Business: The Foundations*, Vol.2., pp.27-52
5. Meadows Donella H.(ed)(1972), *The Limits to Growth: A Report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Universe Books, New York.
6. Samuelson, Paul(1967) *Economics: An Introductory Analysis*, McGraw-Hill, New York.
7. Simon, Julian L. and Herman Kalin (ed.)(1984), *The Resourceful Earth: A Response to Groval 2000*, Blackwell, Oxford.